

시카고에 '한복 입은 미셸 오바마' 그래피티 등장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이 전통 한복을 갖춰 입은 모습의 벽화가 최근 시카고 도심 진입로 인근에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카고 웨스트 타운 상가 밀집지역의 3층짜리 벽돌 건물 측면 외벽에 그려진 벽화 속 미셸 오바마는 커다란 보름달을 배경으로, 진회색 고름에 흰색 끈동이 달린 자주색 저고리와 은색 치마를 입고 있다.

이 벽화는 3년 전부터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한국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31) 씨가 지난달 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제작했다. 벽화가 그려진 건물은 최근 주인이 바뀐 한식당이다.

심 씨는 지난달 27일 작업 완료 후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내가 시카고에 그림을 그리러 간다고 하니, 많은 이들이 미셸 오바마를 언급했다."며 "미셸 오바마에 대해 잘 몰랐으나 그가 시카고 남부에서 태어난 흑인

여성으로서 미국의 영부인에까지 오르며 모두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 2016년 뉴욕·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을 돌며 '한복 입은 흑인 여성과 한글'을 소재로 한 그래피티로 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 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복합문화공간 '더 컨테이너 야드' (800 E 4th St., LA, CA 90013)에 그린 '꽃이 피었습니다'는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말 탄 백인 경찰, 흑인 줄로 묶어 연행...경찰 사과

텍사스에서 말에 올라탄 백인 경찰관들이 체포한 흑인 용의자를 밧줄로 묶어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



마치 남북전쟁 이전 흑인 노예를 연상시키는 모습이 가뜰이나 트럼프 정부 들어 한층 가열된 인종 갈등에 기름을 끼얹자 경찰은 황급히 사과했다.

7일 '연합뉴스'가 워싱턴포스트(WP)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흑인 도널드 날리(43)는 지난 3일 텍사스주 켈버스턴에서 건물 무단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브로시'와 '스미스'라는 이름만 알려진 두 경찰관은 말과 밧줄을 가지고 있었지만 붙잡은 날리를 태워갈 순찰차는 없었다.

열은 색 카우보이모자를 쓴 두 경찰은 날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파란색 밧줄을 수갑에 묶었다. 그리고선 말에 올라타고 날리를 한 블록 떨어진 경찰서까지 데리고 갔다.

날리는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앞서가는 말 쾅무늬를 따라 터벅터벅 도로 위를 걸었고,

길 가던 사람이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사진을 본 흑인들은 1800년대 미국 남부에서 도망치다 붙잡힌 흑인 노예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버넌 헤일 켈버스턴 경찰서장은 "이번 체포는 날리에게 불필요한 당혹감을 줬다."며 황급히 사과했다. 헤일 서장은 성명에서 "두 경찰관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체포 장소에서 경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다."고 질책했다. 그는 그러나 브로시와 스미스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후폭풍은 우리에게 흑인에 대한 경찰의 처우와 관행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며 "이 체포 기술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날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날리의 변호사는 "경찰이 날리를 다룬 방식은 역겨웠다. 가족은 몹시 속상했다."면서 자신 역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8월 12일 ~ 8월 18일, 2019년

띠별 운세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 12, 15, 16

여자 길일 : 13, 14, 17, 18



지금은 불안과 고독이 따르더라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실력을 기르면서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혹 어려움이 생기면 믿을 만한 윗사람인 동료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세요. 중용을 지키면 작은일은 뜻대로 행통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지금은 실력이 있어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실력을 배양하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재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듯이, 주어진 상황과 때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지금까지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바로잡고, 앞으로는 올바른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태평하겠지만, 내심으로는 갈등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은 몸을 기르는 근본이니, 특히 음식과 언행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 풍년을 맞게 됩니다. 목표를 세운 뒤에 좋은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특히 좋은 협력자의 도움으로 능력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옳은 일은 실행하고 잘못된 일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반복되는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태평스러운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구의 덕을 좇아 자신의 처소를 쉽게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며, 허망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나친 확장이나 새로운 계획은 좋지 않습니다.
금전○애정○건강△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 내면 뜻밖의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삼가고 검소한 덕으로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면 좋은 복록이 생길 것입니다. 명예와 재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분수를 지키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행동을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도리에 맞는 생활을 하면 저절로 복록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니, 많아서 넘치는 것이 있으면 모자라는 곳에 덜어 주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겸양의 도는 어디에나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금전○애정○건강△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시 돌아온 격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유망한 사업을 발견한다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운세가 크게 좋지는 못하므로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먼 곳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안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심신이 부패해지는 법.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신중한 계획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바로잡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정신적인 괴로움이 따르겠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크게 행통해지는 법입니다. 소인배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도모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리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안정된 태도를 취해야 좋습니다. 절제가 지나치면 발전하지 못하고, 절제가 없으면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법. 중도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복록이 뒤따를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지금은 땅 위를 걸어 다니는 유순한 암소처럼,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조용히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더 길합니다. 또한 땅이 만물을 포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끈게 가지면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남쪽으로 가면 좋은 협력자를 얻지만, 동북쪽으로 가면 잃게 됩니다.
금전△애정○건강○



높은 산이 비바람을 맞는 격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고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스스로의 실력 향상에 주력하고 내부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법. 경솔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혹, 소인배의 비방이나 시비가 있더라도 다투지 말고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금전○애정○건강△